

여자 핸드볼, 파리에서 다시 한번 '우생순'

한국 구기종목 유일 출전...시그널 감독 "8강 진출 목표로 훈련"

우리나라 단체 구기 종목 중 유일하게 파리 올림픽에 출전하는 여자 핸드볼 대표팀이 본격 위밍업에 나섰다.

레프트윙 서아루(광주도시공사)를 포함한 22명의 대표팀은 헨리크 시그널(스웨덴) 감독의 지휘 아래 현재 충북 진천 선수촌에서 맹훈련을 펼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8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아시아 예선 마지막 4차전에서 승리하며 11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을 이뤄냈다.

이번 대회 조 편성 결과 한국은 지난해 세계선수권 2~4위 팀들인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함께 A조에 묶이면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대표팀을 이끄는 시그널 감독은 강팀들을 상대하기 위해 "도전정신과 믿음이 필요하다"며 훈련에 임하고 있는 마음가짐을 전했다.

시그널 감독은 "올림픽에서 우리 모두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많은 훈련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대회에서도 강팀들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특히 유럽팀들이 강하다. 한국이 속해있는 A조에서는 다소 힘든 경기가 예상된다. 도전정신과 하

나의 팀으로서 서로를 믿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표팀은 6월 2일까지 진천 선수촌에서 훈련을 진행한 후 1차 유럽 전지훈련을 떠나 실전 감각 끌어올리기에 나선다.

7월 초 다시 진천선수촌에 소집, 7월 8일 2차 유럽 전지훈련을 떠나는 대표팀은 훈련을 마친 뒤 곧바로 올림픽이 열리는 프랑스로 이동한다.

시그널 감독은 "최고의 팀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강해져야 한다"며 "유럽팀과 많은 경기를 치르면서 한국 리그나 아시아 팀들과의 차이점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하나만 집중해서는 안 되고 모든 것에 집중해야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훈련을 통해 올림픽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번 올림픽 목표에 대한 질문에는 "8강 진출을 한다던 성공으로 봐야 할 것"이라며 쉽지 않은 도전임을 내비치면서도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솔직히 우리 조의 모든 팀이 정말 강하고 현재 유럽 핸드볼이 아시아 핸드볼보다 더 강한 것



우리나라 단체 구기 종목 중 유일하게 파리 올림픽에 출전하는 여자 핸드볼 대표팀이 충북 진천 선수촌에서 본격적인 훈련을 진행 중이다. <대한핸드볼협회 제공>

도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팀은 강팀을 상대로 이길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다. 선수들이 각자 갖고 있는 기술적 장점을 활용해야 한다. 팀이 서로를 믿고 모든 선수가 각자의 최고 수준을 만들어낸다면 우

리는 충분히 다른 팀들을 놀라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8강에 오른다면 그것을 성공으로 봐야 할 것이다. 힘들겠지만 가능성은 있다고 확신한다"고 8강 도전의지를 밝혔다.

한편, 한국 여자 핸드볼이 올림픽 메달을 딴 최근 사례는 2008년 베이징 동메달, 4강은 2012년 런던 대회 4위가 마지막이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송원대 이상의, 아시아주짓수대회서 우승

+94kg급서 이란 상대 16-0 완파

송원대 스포츠지도학과 이상의(2년)가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2024 청소년아시아주짓수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거머쥐었다.

최근 끝난 이번 대회에서 이상의는 U21 남자 +94kg급 대회 준결승에서 이란 선수를 상대로 16-0으로 완파한 뒤, 결승에서 카자흐스탄 선수를 백초크 서브미션으로 누르고 1위에 올랐다.

이상의는 지난해에는 2023 아시아주짓수 챔피언십에서 금메달, 2023 청소년세계선수권대회 은메달을 획득하기도 했다.

송원대 최수태 총장은 "이상의 선수가 송원대학교 주짓수를 알리는 훌륭한 선수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고, 스포츠지원단장 신정훈 교수는 "앞으로도 주짓수부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며 약속했다.

한편, 지난해 3월 전국대학 유일의 주짓수팀(강



2024 청소년아시아주짓수선수권대회 우승을 차지한 이상의가 송원대 최수태 총장(왼쪽), 신정훈 교수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송원대학교 제공>

독 박경민)을 창단한 송원대는 지역사회 청소년들을 위한 주짓수아카데미를 운영하며 지역인재 양성과 건전한 체육문화 형성에 앞장서고 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광산구 동호인들, 김대중배 축구대회서 장년·실버부 동반 우승

전국서 30개 팀 출전

광주시 광산구 축구 동호인들이 '제1회 김대중배 전국축구대회'에서 장년부, 실버부 동반 우승의 쾌거를 이뤘다.

지난 18-19일 목포시축구센터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전국 동호인 청년부(20-40대) 12개, 장년부(50대) 12개, 실버부(60대) 6개 팀이 참가해 승부를 겨뤘다.

광산50팀은 장년부 결승에서 목포팀을 3-2로 꺾고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광산50팀은 예선전에서 전북 김제팀을 2-1로 꺾은 뒤 광주 해병대팀과의 경기에서 5-2로 우위를 점하면서 4강 대진표에 이름을 올렸다. 제주팀을 상대로 3-1로 승리하면서 결승에 진출한 광산50팀은 '홈팀'을 꺾고 장년부 우승을 차지했다.

광산60팀은 실버부 정상에 올랐다.

전북 군산팀과의 예선전에서 1-1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던 광산 60팀은 제주팀을 상대로 2-0으로 승리하면서 4강에 진출했다. 광산60팀은 준결



광주시 광산구 축구 동호회 광산50팀, 광산60팀이 지난 18~19일 목포시 국제축구센터에서 열린 제1회 김대중배 전국축구대회에서 장년부, 실버부 동반 우승을 차지했다. <광산50팀 제공>

승에서 광주 해병대팀을 1-0으로 꺾은 뒤 '마지막 승부'에서 목포팀을 4-0으로 완파했다.

장년부 정상에 오른 광산50팀에게는 우승 상금 200만원이, 실버부 1위를 기록한 광산60팀에게는 우승 상금 100만원이 주어졌다.

한편, 올해 처음 열린 이번 대회는 김대중 전 대

통령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김 전 대통령을 추모하고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정신을 계승하고자 열렸다.

전남도, 전남도체육회, 목포시, 목포시체육회가 주최하고 목포시 축구협회에서 주관했으며 김대중 재단에서 후원했다. /서민경 기자 minky@

페퍼스 선수들 "우리도 풍암동 주민"

이고은·박경현·하혜진

25일 주민총회서 사인회

페퍼커피축은행 AI페퍼스가 2024 풍암동 주민총회에서 사인회를 개최해 주민들과 소통에 나선다.

페퍼스는 오는 25일 오후 3시30분부터 4시 30분까지 풍암동 윤리어린이공원에서 사인회를 진행한다.

이날 사인회에는 세트 이고은, 미들블로커 하혜진, 아웃사이드허터 박경현이 참가해 500여명의 주민과 함께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사전 신청자나 초청 관중없이 정해진 시간에 현장 방문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치러진다.

2024 풍암동 주민총회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의 장으로 풍암호수정미원-풍암생활체육공원에 이날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펼쳐진다. 이날 주민들은 테마가 있는 공원 만들기, 담배 냄새 없는 거리 만들기 등 의제를 다루고 피크닉·마을골든벨·한복체험 등 다양한 테마의 체험 프로그램도 진



행한다.

페퍼스 선수들도 '주민'으로 이날 행사에 참가한다. 현재 페퍼스 선수단은 풍암동에 위치한 아파트를 숙소로 사용하고 있다.

페퍼스 관계자는 "선수들도 풍암동 주민이고 홈구장 역시 풍암동 소재다 보니 지자체와 협의해 윤리어린이공원을 사인회 장소로 정하게 됐다"며 "꾸준히 응원해주는 관중들께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도록 여러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페퍼스는 오는 6월 1일 서구청과 함께 플로깅 행사를 진행해 지역 주민으로서 환경 보호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세계 1위' 세플러, PGA 찰스 슈와브 챌린지서 시즌 5승 도전

김주형·임성재·김시우 등 출사표

남자 골프 세계랭킹 1위 스키티 세플러(미국)가 시즌 5번째 우승에 도전한다.

세플러는 오는 24일(한국시간)부터 나흘 동안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의 콜로니얼 컨트리클럽(파70)에서 열리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찰스 슈와브 챌린지(총상금 910만 달러)에 출전한다.

올해 들어 벌써 메이저대회 마스터스를 포함해 4차례 우승을 차지해 상금, 페덱스컵 랭킹, 그리고 세계랭킹에서 경쟁 상대가 없는 1위를 질주하는 세플러는 이번 대회에서도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다.

찰스 슈와브 챌린지는 총상금 2천만 달러짜리 특급 지정 대회가 아닌 일반 대회라 최정상급 선수들은 대거 불참한다.

하지만 텍사스에서 태어나 자랐고 지금도 텍사스에 거주하는 세플러는 텍사스에서 열리는 대회

는 웬만큼 나온다.

올해 11번 출전한 세플러가 메이저대회와 특급 지정 대회가 아닌데도 출전한 대회 3개 중의 하나는 3월 텍사스 칠드런스 휴스턴 오픈이다.

세플러는 올해 참가한 11개 대회에서 4차례 우승과 준우승 한번, 3위 한번을 포함해 무려 10번이나 톱10에 입성했다.

가장 나뉘었던 성적은 2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공동 17위다.

AT&T 페블비치 프로암부터 지난 19일 끝난 PGA 챔피언십까지 9개 대회 연속 톱10에 진입했다.

PGA 챔피언십에서는 2라운드를 앞두고 경찰에 연행돼 머그샷까지 찍고 풀러났고 3라운드 때 는 전담 캐디가 팔 졸업식에 가느라 임시 캐디를 쓰는 등 어수선하기 짝이 없는 상황에서도 공동 8위에 오르는 저력을 보였다.

세플러는 찰스 슈와브 챌린지에서 지난해 공동 3위, 2022년에는 연장전 끝에 준우승하는 등 아쉬

움과 자신감을 함께 갖고 있다.

이 대회는 세플러뿐 아니라 세계랭킹 9위 폴린 모리카와(미국)와 10위 맥스 호마(미국), 11위 브라이언 하먼(미국)이 참가한다.

모리카와는 세플러의 5승을 저지할 강력한 경쟁자다.

아무래도 정상급 선수가 많지 않아서 한국 선수 활약도 기대된다.

PGA 챔피언십에서 공동 26위에 올라 그동안 부진에서 벗어나는 조짐을 보인 김주형은 PGA 투어 진출 이후 처음 이 대회에 출전한다. 김주형은 집이 대회 코스와 지척이다.

임성재, 김시우도 첫 우승을 노리고 출사표를 냈다. 이경훈과 김성현도 출전 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정상급 선수들이 대거 빠져기에 우승 경쟁도 별 일만하다.

에밀리아노 그리오(아르헨티나)는 타이틀 방어에 나선다. /연합뉴스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4년 광주상설공연(5월)
 일시 : 2024-05-04(토) ~ 2024-05-26(일)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

광주시립발레단 제137회 정기공연 「DIVINE」
 일시 : 2024-05-24(금) ~ 2024-05-25(토)
 05.24.(금) 19:30
 05.25.(토) 15:00, 19: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415-5502 / 062-522-8716